

전북

동학혁명 기념일 놓고 또 논란

정읍시, 고창 무장기포일 선호하는 추진위 활동 중단 요구

<1894년 4월25일>

“정읍정신 뺏길수 없다” 반발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활동 중단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읍시는 18일 지역 동학단체와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의 결의안을 추진위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27일 열리는 추진위 회의에서 이해할 만한 조처가 없으면 추진위 중단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진위와 위원 일부가 특정일을 겨냥해 구성된 의의가 있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쳐지지 않아 존립 명분과 활동 근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학 논문 2권을 집필한 추진위원이 거의 없고 무장기포일을 공개 지지한 인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추진위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일부 추진위원이 기념일 후보일로 정읍 황도현 전승일(1894년 5월

10일)보다 고창 무장기포일(1894년 4월25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읍 정신의 축인 ‘동학’을 뺏길수 없다”는 지역 내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용희 사무처장은 “자문기구인 추진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 활동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며 “다만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기념일을 제정하겠다는 재단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가을 전어가 벌써...

젖은 비 수은 내려가자 부안·군산 앞바다 어획 시작

최근 젖은 비로 수은이 내려가자 가을철 벌미 전어잡이가 전북 서해안에서 시작했다.(사진)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고군산군도와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요즘 20여 척의 어선이 30 안팎의 전어를 잡고 있다. 늦가을에 먼 바다로 나갔다가 수은이 10~26도로 낮아지자 8월 초부터 연안으로 돌아온 것이다.

조업시기도 지난해보다 다소 빨라졌고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전어잡이가 이뤄진다.

산지에서는 kg당 3000원에 소매상에 팔려나가고 상가에서는 kg당 1만

5000원에 먹을 수 있다. 도내에서 전어를 잡을 수 있는 어업 허가는 29건이며 이들 어선은 지난해 305t의 어획량을 올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10월까지 300t 안팎의 전어잡이로 10억 원가량의 어민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름지고 고소한 청어과의 전어(15~31cm)는 구워 먹거나 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속담처럼 가을철 벌미도 손꼽힌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한성기업·자라생산자협 익산 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업체인 한성기업과 한국 자라생산자협회가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한다. 익산시는 지난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성기업, 한국 자라생산자협회 관계자와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성기업은 3만3000㎡의 부지에 현대식 생산시설을 갖추기로 했고, 자라생산자협회는 9000㎡ 규모의 가공공장 설립을 약속했다.

한성기업은 연매출 2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수산물 가공업체이며, 한국자라생산자협회는 131개 회원사가 참여한 단체로 자라양식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함께 이들 기업과 단체가 조속히 투자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순창군 풍수해 대비 훈련

순창군은 지난 17일 구림면 월정리 장안마을 앞 하천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공무원과 구림 119지역대, 구림파출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원,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구림면 월정리 장안마을 앞 하천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공무원과 구림 119지역대, 구림파출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원,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군산 미룡동에 조미 김 생산공장

아리울21식품, HACCP 인증 물김 2차 가공 나서

서해안의 물김 채취지역으로 유명한 군산시에 조미 김 생산공장이 문을 연다.

군산시는 “미룡동에 있는 아리울21식품의 김 가공공장이 20일 준공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부지 5020㎡에 2층 규모로 건립된 이 공장은 최근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도 받았다.

군산시는 시·군단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연간 32만 내외의 물김 산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내에 1차 가공(물김을 마른김으로 만드는 과정) 업체는 물론 2차 가공(마른김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다) 전혀 없어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산시는 김 가공공장 완공에 따라 수산물 부가가치회를 통해 지역경제

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여명의 지역주민을 생산직원으로 고용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물김은 많이 생산되지만 가공공장이 전혀 없어 물김이 인근 충남의 서천 지역으로 저가로 유통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조성된 아리울식품을 계기로 앞으로 1·2차 김 가공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승석기자 nogusu@

뉴스 브리핑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합기도대회

‘제10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합기도대회’가 20~21일 이틀간 전북 교육문화회관(구 윤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국민생활체육 전주시 합기도연합회(회장 정봉욱)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유치부부터 일반인까지 1000여명

의 선수 및 동호인들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호신술(개인) 및 연무(단체), 낙법(높이 및 멀리 뛰기), 대련(49체급), 족술 등 4개 분야에서 체급별로 나눠 그동안 안 갖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재해복구 전담 TF팀 운영

정읍시는 지난 9일 집중폭우 피해에 따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재해복구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TF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차장(녹색도시국장), 산사태, 도로·교량과 수리시설, 하천 3개

분야로 각 분야마다 민간 전문가 3명, 공무원 2명씩 각 팀별 5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TF팀은 피해 시설물의 개량 복구 계획을 수립해 국가지원을 최대한 유도하고 항구 복구 개량 시설물 발굴 및 조사를 맡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의회 3년째 의정비 동결

남원시의회(의장 조영연)가 지난 2010년부터 3년째 의정비를 동결했다. 남원시의회는 18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동일한 연 320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188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영연 의장은 “법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과 시 재정적·사회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보건소,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 정신보건센터는 지난 18일 금산사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레크리에이션 등 야외 활동과 자연감상을 통해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적응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시보건소는 사회적응훈련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에게 자신감과 사회복귀에 대한 희망을 주고자 매주 화~목요일에 미술 심리치료, 생활제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3-540-1350)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고창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업무 협약

고창군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 18일 종자산업의 기반 마련 및 농업의 새로운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신품종의 종자 공급 및 생산단지 유치 ▲연구 개발된 신기술 보급 및 농가 실증사업 추진 ▲생산자와 유통업체간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관로 확보 등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생산한 고구마 무병 종순을 확보해 고품질 고구마 생산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품종 종자산업 및 신기술 보급으로 다른 지역보다 농업 실용화 부문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주택지 · 협의자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나라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Nara' featuring 'Penstemon' and 'Motel' properties. Includes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중앙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ungyong'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like 'Sanggajon' and 'Daeji'. Includes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금당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mdan'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like 'Gimdan' and 'Gimdan'. Includes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like 'Daedong' and 'Daedong'. Includes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